

페미니스트 사회사업방법에 관한 연구

김성천(원광대 사회복지학과)

I. 서론

최근의 사회변화로 인해 페미니스트 접근방법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엿한 학문의 연구방법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부장주의적 성격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남녀불평등의 구조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남녀고용차별의 문제, 여성가주주 가족의 빈곤문제, 아내학대의 문제, 성폭행 및 인신매매 문제, 근친강간의 문제, 취업모들이 겪게 되는 2중 3중의 과부담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¹⁾ 또한 사회복지 대상의 다수와 사회복지 기관에 찾아 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도 남녀불평등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 요인은 성차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여성의 진화, 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페미니스트 상담을 통해 남녀고용차별의 문제, 아내학대의 문제, 성폭행 및 인신매매 문제, 근친강간의 문제, 이혼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의외되는 한국의 사회사업계에서는 아직 페미니스트 접근법이 체계적으로 소개되거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기존의 사회사업 접근법들은 성차별의 요인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강화시킴으로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의 사회사업이 성차별로 인하여 발생하게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사회사업에 페미니스트 접근이 접목되어, 다양한 사회사업접근법 중 한 접근법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접근하기 위한 서설적 연구로 기존 사회사업 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살펴 보고,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모델 및 원리를 고찰한 연후에 기존 사회사업의 접근법에 페미니스트 접근의 수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규정

본 논문에서는 페미니즘을 어떤 기술들이나 결론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실을 보

1) 김성천, '한국에서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1992, pp.3-7.

고 이해하려는 여성 중심의 시각에서 본 양성평등주의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남성 중심의 관점이 아닌 여성 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의 열악한 위치를 인식하려는 데서 출발하고, 남녀불평등의 원인과 형태를 분석하며, 변화의 전략들을 제시하고, 여성의 실체와 여성에 대한 해석을 하여주고, 여성의 기여에 대한 확신과 인식을 갖게 하여 주는 관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마스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대책모색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성립된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기존의 사회사업과 이론적으로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회사업에 대한 하나의 급진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양자는 공히 개인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개별적이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욕구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²⁾ 반면에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사업은 클라이언트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강조하나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기존 사회구조에 도전한다. 둘째, 기존의 사회사업이 성차별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모델이나 치료기법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성차별을 강화하기도 한다. 반면에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실무에서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회사업가에 의해 태동한 것으로 페미니스트 운동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고,³⁾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과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Van Den Bergh & Cooper는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이 다음의 5가지 기본적인 원리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1) 거짓된 2분법과 작위적인 분리를 제거한다. 2) 권력을 재개념화 한다. 3) 결과 만큼이나 과정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4) 재명명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5)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점을 믿게 한다.⁴⁾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원리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공통 요인들을 뽑으면 다음과 같다.⁵⁾ 1)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은 사회정치적 틀내에서 해석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남녀 불평등의 구조에서 해석된다. 2) 전통적인 성역할에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생활스타일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을 추구하도록 지지하여 준다. 클라이언트들은 양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된다. 3) 치료는 클라이언트의 병리를 고치려하기 보다 강점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이 주어진다. 4) 독립적인 자아정체감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5)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여 준다. 남성들과의 관계만큼이나 여성들과의 관계를 중

2) N. Van Den Bergh & L. B. Cooper (eds.), *Feminist Visions for Social Work*,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1986, p.3.

3) S. Berlin & D. Kravets, *Social Work*, Vol. 26, N. 6, 1981, p.447.

4) N. Van Den Bergh & L. B. Cooper, op, cit., 1986, p.4.

5) N. Van Den Bergh & L. B. Cooper, *Feminist Social Work*,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87, p. 614.

<표 1>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모델내에서 페미니스트 사회사업 실천	
주 제	문 제 규 정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개인적 결합, 특히 성역할의 사회화에 뿌리를 둔 결합을 규명; 기회구조의 문제, 특히 성차별주의에 뿌리를 둔 문제를 규명; 개인적 결합과 기회구조간의 상호작용을 규명; 사회-제도적 지지의 존재를 규명.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개인적인 문제와 가부장주의에 뿌리를 둔 억압적 사회관계간의 관련성 규명; 전통적인 성역할 및 권위적-계층적(가부장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제도적 수단들을 규명; 가부장주의적 성역할의 사회화를 통해 나타나는 퍼스널리티 속성의 규명.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가부장주의와 계급에 영향을 받는 제도적 과정 및 신념체제의 영향규명; 두 체제 내부와 두 체제간에 나타나는 모순에 기반하여 문제규명; 지배체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퍼스널리티 속성점검.
사 정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4가지 수준에서 시행: 1)개인적 결합의 정도와 상태를 사정 2)기회구조내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들의 정도와 영향력 사정, 3) 개인의 결합과 기회구조간의 상호작용에서 우선순위를 열거하고 사정, 4) 사회-제도적 지지의 이용가능성을 사정.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가부장주의를 특징짓는 1차적 관계와 2차적 관계를 사정; 이러한 가부장주의적 이코 제도적인 과정 ;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사정; 가부장주의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퍼스널리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사정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주의적 여권주의와 거의 같으며, 추가사항: 계급, 인종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 사정; 소외, 자기충족, 지배제도와 관련된 통제위치의 문제를 점검.
치 료 전 략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전통적인 치료법 이용: 개별심리치료, 집단치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병리문제를 다루며, 가족치료방법 중 일부를 이용; 환경속의 개인을 다루기 위하여 개별사회사업과 방문서비스를 사용, 생존욕구 및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 및 환경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려고 노력함; 옹호기법을 이용하여 인종, 연령 등의 문제와 더불어 특히 성에 기초한 클라이언트의 차별제거를 보증함; 클라이언트 중심의 지지집단 창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여성과 남성용 의식화(억압자 및 피억압자의 심리물 제거); 여성을 위한제거); 몇가지 전통적인 치료형태가 이용됨(여성을 돕는 여성을 강조) ; 정서적, 지적 반응을 유발하는 건설적 출구를 만들고,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을 정치화하고 동원함으로써 의식화와 치료를 이용.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의식화를 통해 개인이 그들의 관계에 계급차별, 성차별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억압이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함;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배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지지적 자조집단 및 옹호집단을 이용; 동맹결성 및 개인과 집단에 대한 권력부여를 통해 지배체제의 한계와 관련없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제시; 클라이언트를 격려하여 정치적 행동을 유도.
치 료 목 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개인의 결합을 수정; 문제가 되는 기회구조를 공개; 지지집단을 수립하여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것이 충족되고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도와 줌.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개인의 문제가 가부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단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며(개인을 정치화시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퍼스널리티의 특질을 재통합하여 성역할을 초월한 퍼스널리티를 창조; 가부장주의적 성격에 갖는 1차적, 2차적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증진시킴(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으로 전환); 여성을 동원하고 정치화하여 보다 큰 사회제도의 있어서 변화에 영향을 줌(가부장주의 제거); 가부장주의적 성역할의 사회화로 인한 장애제거; 여성을 위한 대안적 공동체 창출; 姉妹愛를 증진시킴.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적 여권주의와 동일. 추가 사항 :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 계급과 가부장주의간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며, 억압적 퍼스널리티 및 억압체제 자체를 중심시킴; 조직 및 동맹결성을 조장하며, 개인 및 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이 지배체제로 인해 제한받아왔던 생존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 다인물 회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체적 욕구 및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시한다. 6) 일과 대인관계간의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7)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치료자와 클라이언트간의 권력관계는 평등하다. 페미니스트 치료가는 자신들은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부여하는 촉매자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료관계의 재개념화는 지배와 종속관계를 제거한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방법의 모색이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4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3. 기존 사회사업 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적 접근

페미니스트들은 대체로 정신역동 접근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프로이트 이후 전통적인 상담이란 내담자가 '문제가 있는 개인'이라는 전제를 고수해 왔으며, 따라서 그 개인이 '치료'를 통해 변화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반면에 페미니스트들이 신뢰하는 실천이론은 성역할에 입각한 행위와 일반적인 역기능 행위가 특정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단순히 학습된 것 혹은 특정 인지 작용의 결과이므로, 이런 행동은 인간의 성격을 변형시키지 않고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⁶⁾ 체계이론은 성을 무시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어서 남녀불평등의 문제에 도전하기가 어렵다고 본다.⁷⁾ 체계이론은 추상성이 강하여, 성과 권력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도 문제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제공하여 줄 수 있으며, 행동하는 인간보다는 움직이는 과정에 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대해 권력을 가졌는가는 관찰되지 않는다. 체계이론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⁸⁾ 또한 페미니스트들을 사회사업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1) 순환적 인과론(circular causality)

기존의 사회사업에서 순환적인 인과관계라든가 중립성의 유지 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임상실무에서 성의 문제를 인지하는데 방해가 되었다.⁹⁾ 체계이론에서 인과관계는 직선적인 것이라기 보다 순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 개념을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경우 가족의 각 구성원은 가족에서 동등한 힘을 가지고 체계의 유지나 문제 유발에 동등하게 기여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순환적 인과론을 아내학대, 강간, 근친강간과 같은 문제상황에 적용

6) S. F. Lowenstein, *Feminist Social Work*, 「임상사회복지학」, 집문당, 1985, p.160.

7) T. J. Goodrich, C. Rampage, B. Ellman, K. Halstead, *Feminist Family Therapy*, Canada, Penguin Books Canada Ltd, 1988, p.15.

8) D. Wheeler, J. M. Avis, L. A. Miller, S. Chaney, 'Rethinking Family Therapy Training and Supervision: A Feminist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the Family*, 1985, 1, pp.136-137.

9) F. Walsh, M. Scheinman, 'The Hidden Gender Dimension in Models of Family Therapy', In M. McGoldick (Eds.), *Women in Families*, Penguin Books Canada Ltd., 1989, p.37.

시켜 보면, 가해자인 남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 역시 그러한 폭력과 학대를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개념을 중시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힘있는 자의 횡포는 미화될 수 있고, 윤리적 책임도 도외시 될 수 있다.

(2) 상보성(complementarity)

순환적 인과론과 같이 상보성은 두 체계가 서로 보완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부부간의 상호작용 위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가 갖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남녀간의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결혼 관계에 상보성을 적용하였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과 여성이 법과 사회적 관습 및 교리에 의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준다. 상보성은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한 관계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설사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성원이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불평등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공해 준다.¹⁰⁾ 이러한 상보성의 개념은 사회사업가가 “남녀간의 권력과 지위, 불균형한 통제력을 조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페미니스트는 비판한다. Goldner는 상보성의 아이디어가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권력과 지배의 역동성을 모호하게 해주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환상을 심어 준다고 비판한다.¹¹⁾

(3) 중립성(neutrality)

불평등한 가부장주의적 성 위계구조 하에서 사회사업가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중립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평등의 가치를 영속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 학대의 상황에서 사회사업가가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은 실제로 학대 받는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가치 자유적인 치료모델들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중립성이란 유토피아적인 생각이고 복잡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적용되기 힘들고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5)公私영역의 이분법(public - private dichotomy)

기존 사회사업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사회가 다음과 같이 불평등하고 성차별화된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사적/가족의 영역과, 남성이 지배하면서 높이 평가되는 공적/직업적 영역이 그것이다.¹²⁾ 그런데 기존의 사회사업은 여성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10) T. J. Goodrich, C. Rampage, B. Ellman, K. Halstead, op.cit., p.16.

11) V. Goldner, 'Feminism &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vol. 24, N.1, 1985, p.33.

12) D.Wheel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Feminist-Informed Family Therapy: A Delphi Study, U.S.A. Purdue University, 1985, p.45.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존 사회사업 이론이 성차별의 문제를 다룰 만한 적절한 이론 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사회사업이 성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여성의 종속적 지위나 여성의 고통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고 가족문제, 성폭력의 문제, 아내학대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의 대안으로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실시를 주장한다.

4.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모델

Janet A. Nes & Peter Idaicola는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규정을 위하여' 라는 글에서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3모델로 나누면서 그들이 사회사업 실천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입각하여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모델을 문제규정, 사정, 치료전략, 치료목표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¹³⁾

5.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수용 가능성과 전망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 본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어느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Loewenstein은 기존 사회사업의 정신역동, 문제해결, 행동주의, 교호작용 분석, 게스탈트 등의 어느 접근법이든 페미니스트 접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¹⁴⁾ Menaker(1974)도 정신분석 치료를 비롯하여 어느 장기적인 치료라도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¹⁵⁾

그러나 Sherman은 Loewenstein과 Menakeer와는 다른 주장으로 페미니스트 치료가 내적 정신을 변화시키려는 전통적인 정신분석 접근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¹⁶⁾ Sherman과 유사한 입장을 지닌 De Vore와 Schlesinger는 심리사회주의 접근을 제외한 다른 사회사업의 접근들에서는 페미니스트의 원리가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과업중심 접근을 포함하는 문제해결 접근들은 페미니스트 접근과 일치하는 면이 있고, 구조적 접근법과 체계적 접근법도 페미니스트 관점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

13) Janet A. Nes & Peter Idaicola, 'Toward a Definition of Feminist Social Work: A Comparison of Liberal, Radical, and Socialist Models, Social Work, January 1989, Volume 34, Number 1.

14) S.F. Lowenstein, 「전계서」, p.154.

15) 「상계서」, p.154에서 재인용.

16) N. Van Den Bergh & L. B. Cooper, op, cit., 1986 p.614.

기존 사회사업 접근은 비록 아직까지는 가부장주의에 대한 분석을 행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으로 성차별의 문제를 중시하지 않고 있지만, 의외로 페미니스트 접근과 많은 상관성이 있어서 페미니스트 접근과 기존의 사회사업의 많은 접근들은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기존의 사회사업과 아주 다른 접근법이 아니라 기존 사회사업의 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그 질적 내용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임상접근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며, 그 보다는 사회사업의 전통적 모델을 수정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나치게 심리 내성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 일부 사회사업의 접근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사업 접근들이 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중시하는 인식 전환을 하도록 하는 페미니스트 접근은 기존의 사회사업에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페미니스트 접근법이 기존 사회사업에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것이 실제로 한국 사회사업계에 수용될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매우 발달한 미국에서도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주도적인 접근법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¹⁸⁾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도처에서 아직 보수적인 생각을 지닌 집단들이 많고,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볼 때,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¹⁹⁾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젊은 층, 고등교육을 받은 자, 중산층의 여성들일 수록 페미니스트 접근은 잘 수용되고 문제해결의 효과는 높다고 한다.²⁰⁾ 한국에서도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치료자나 클라이언트 양자가 페미니스트 접근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²¹⁾, 일단의 수용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장에서 제시된 페미니스트 사회사업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 한국 사회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비록 당분간 한국에서 페미니스트 사회사업 접근법이 주도적인 접근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사업의 특정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사업 접근법 중의 하나로는 자리잡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

17) Francis J. Turner(eds), 'Social Work Treatment', The Free Press, 1986, p.579.

18) Janet A. Nes & Peter Idaicola, op., cit, p.20.

19)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이은주, "남편의 혼외관계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와 윤리적 딜레마", 양옥경의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 1993, pp.165-167.

20) Janet A. Nes & Peter Idaicola, op., cit, p.577.

21) 김성천, '한국에서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1992.

기 위해서는 우선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